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19면	"노인이 행복하고 존경받는 강원 만들기 뜻 모으자"	1
江原日報	03면	자치도의회 오늘 어린이도의회 개최	1
신아일보	온라인	강원도의회, 2023년 어린이도의회 개최	2
중부시사신문	온라인	강원도의회, 2023년 어린이도의회 개최	3
강원도민일보	23면	인제서 강원예술인한마당 개막 도문화상 시상식도 함께 개...	4
강원도민일보	02면	"반도체산업 종합계획 상시 점검을"	5
江原日報	03면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지원 조례 진통끝 부결	6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안전건설위 조례안 심의	6
江原日報	03면	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도 신청사 건립지 현지 시찰	7
강원도민일보	02면	[알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재정 분야 토론회	7
MTN  머니투데이방송	온라인	홍성기 강원도의원,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8
스포츠서울	온라인	홍성기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수목원 내 취사 금지' 골자 조...	9
강원도민일보	07면	"강원형 산촌 자본주의 확립, 탄소세 도입·가공단지 조성 필...	10
강원도민일보	18면	[요즘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만 남았다	11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홍성기(홍천·왼쪽) 도의원·엄윤순(인제) 도의회 농...	12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강정호(속초·왼쪽)·김용복(고성) 도의원	12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윤길로(영월·왼쪽) 도의원·최종수(평창) 도의원	12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12
江原日報	01면	선발인원 3년째 최저 초등교사 '임용 절벽'	13
江原日報	04면	도내 농기계임대소 인력 전국서 가장 적다	14
江原日報	01면	인기몰이 가리왕산 케이블카 '한시운영' 꼬리표 땔까	14
강원도민일보	11면	주말 '원주 기업도시 상생마켓' 조명섭 뜬다	15
강원도민일보	12면	'축제의 계절' 강릉 지역경제 활성화 단비	15
江原日報	04면	'금값' 김장배추에 무름병 확산... 농가 시름	16
江原日報	04면	물러버린 김배추	16
강원도민일보	18면	[사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필요	17
강원도민일보	18면	[사설] '의원 자유발언' 발언 이후가 더 중요	18

江原日報	25면	[사설] 도내 악성 민원 한 해 평균 471건, 대책 시급하다	19
江原日報	25면	[사설] 보훈급여 인상이 독이 되는 국가유공자 예우	20

강원도민일보

2023 10 13 ()

19

“노인이 행복하고 존경받는 강원 만들기 뜻 모으자”

노인의 날 기념식·어르신 한마당
모범 어르신·노인복지 유공 표창
건강체조·에어로빅 경연대회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13회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가 12일 평창종합운동장에서 도내 18개 시·군 어르신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13회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가 12일 평창종합운동장에서 도내 18개 시·군 어르신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경로의달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평창군과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축제에는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심재국 평창군수, 이상호 태백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김일웅 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과 시·군의회의장, 이건설 노인회

도연합회장과 김대성 노인회 평창군지회장 등 각급 기관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00세를 맞이한 대표 어르신에게 장수지팡이인 청려장을 증정하고 모범 어르신과 노인복지 유공자 개인 및 단체 48곳에 정부

(8명)·도지사(40명) 표창을 전했다. 앞서 정춘자(태백) 씨는 대통령 표창, 이형주 노인회 홍천군지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기념식에 이어 열린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에서는 여가프로그램 경연

종목인 댄스스포츠, 건강체조, 에어로빅 경연대회가 펼쳐졌다.

김진태 지사는 “경로당 운영비와 병원동행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회관도 신축하는 등 어르신들이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도록 부모처럼 섬기겠다”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건설 회장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노인들을 위한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며 “노인이 행복하고 존경받는 강원을 위해 뜻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13일까지 한궁, 어르신 젠가, 에어로빅, 건강체조 등 기본 5종목 경기와 번외 경기 등 다채로운 체육경기 등으로 진행된다. 신현태·김진형

江原日報

2023 10 13 ()

03

자치도의회 오늘 어린이도의회 개최

18개 시군 초교생들 의정 체험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3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도내 18개 시·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도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생들은 각각 도의원, 도지사, 교육감, 사무처장, 의사관 등 역할을 맡아 의정활동을 체험한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장 선출, 안건 상정 및 의결, 5분 자유발언 등이 진행된다. 학생들은 ‘초등학생 거리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문화 수준 향상 방안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권혁열 강원자치도의장은 “어린

이도의회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어린이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

신아일보

2023 10 12 ()

강원도의회, 2023년 어린이도의회 개최

김정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3일 도내 18개 시·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도의회를 개최한다.

어린이도의회는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학생들은 어린이도의원 49명, 어린이 도지사·교육감·사무처장·의사관 각 1명씩 역할을 맡아 의정활동을 체험한다.

어린이도의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장 선출, 안건 상정 및 의결, 5분 자유발언 등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특히, 학생들은 ‘초등학교 거리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문화 수준 향상 방안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청소년 흡연·음주 문제, 교권 추락, 기후 위기 등에 관해 언급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권혁열 의장은 “어린이도의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어린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어린이가 마음껏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도의회는 어린이도의회를 2016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교육을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강원도/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

2023 10 12 ()

중부시사신문

강원도의회, 2023년 어린이도의회 개최

도내 18개 시·군 초등학교, 일일 도의원으로 생생한 의정활동 체험 가져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13일 도내 18개 시·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도의회를 개최한다.

어린이도의회는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학생들은 어린이도의원 49명, 어린이 도지사·교육감·사무처장·의사관 각 1명씩 역할을 맡아 의정활동을 체험한다.

어린이도의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장 선출, 안건 상정 및 의결, 5분 자유발언 등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특히, 학생들은 '초등학교 거리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문화 수준 향상 방안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청소년 흡연·음주 문제, 교권 추락, 기후 위기 등에 관해 언급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어린이도의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어린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어린이가 마음껏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어린이도의회를 2016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교육을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13 ()

23



강원예술인한마당이 12일 인제에서
도문화상 시상식과 함께 개막했다.

인제서 강원예술인한마당 개막 도문화상 시상식도 함께 개최

강원 예술인의 역량을 집결한 축제
한마당이인제에서 문을 열었다.

2023강원예술인한마당 개막식
이 12일 인제천연잔디구장 야외특
설무대에서 김진태 도지사,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최상기 인제군수, 이
춘만 인제군의장과 군의원, 엄윤순
도의원, 이재한 도예총 회장, 최찬호
강원민예총 이사장, 신현상 강원문
화재단 대표이사, 이만철 인제문화
원장 등 기관단체장과 문화예술인,
지역 주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
다. 도 주최, 인제군 주관으로 15일
까지 4일간 인제일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지는 행사다.

이날 18개 시·군대표팀의 축하공
연에 이어 제65회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식도 진행, 기연옥 춘천
의병아리랑전수관장, 이상수 가톨
릭관동대 박물관 학예실장 정춘근
시인, 변유정 연출가, 박동국 강원
미술협회 속초지부 고문, 최재호 강
릉고 야구팀 감독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문화예술진흥 유공자에 대
한 표창도 전달됐다. 초청가수 원슈
타인과 강태풍의 열띤 무대도 눈길
을 끌었다.

진교원

강원도민일보

2023 10 13 ()

02

“반도체산업 종합계획 상시 점검을”

도의회 경산위 임시회 1차 회의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조례 가결
주력 종목·용수 확보안 등 지적
대상포진 사백신 지원 조례 부결



박대현

이무철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민선 8기 강원도정 역점사업인 ‘반도체산업 육성’ 지원의 근거를 도 조례로 뒷받침하고 나섰다. 하지만, 강원도가 주력할 ‘종목’을 아직 좁히지 못하는 등 전략 부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12일 제32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김기철)를 가결했다. 조례는 기술개발, 관련기업 지원 등이 골자다. 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과 사업을 자문·심의하는 반도체산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반도체 산업 육성 예산으로 1556억원을 산정했다.

회의에서 박대현(화천) 의원은 “원주 반도체 산업을 선언하고 시간이 지

났다”며 “원주에 유치하고 싶은 반도체가 메모리(반도체)냐. 주력 종목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남진우 산업국장은 “주력 종목은 선정을 안했다.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 여러 분야의 기초환경을 다져 끌여가야 하는 입장에서 환경이 구축된 다음에 선정해도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경기 용인시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지로 강원 화천댐이 언급되는 것을 두고 “(강원도가 육성할) 원주도 물이 부족한 것으로 안다. 대비책이 있느냐”며 “화천군은 (용인 공급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남 국장은 “원주권은 (목표는) 향후 파운드리(반도체 제조 위탁생산) 업체 유치”라며 “어느 지역의 물을 끌어올지는 검토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중심의 그것을(산업 용수),

우리 지역에서 끌고 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여러가지를 감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무철(춘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현 시점에서는 5년 단위 종합계획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고, 1년 단위로 세밀하게 사업 시행계획을 갖고 가야 한다”며 상시 점검을 당부했다.

경제산업위는 이날 내년도 지역산업 육성사업 30억, 강원디자인진흥원 11억,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30억 등 출연동의안도 가결했다. 이한영(태백) 의원은 “출연기관은 사업비가 남으면 다음년도에 자체 편성하는데, 의회에서 확인할 기능이 없다”며 “(예산 운용) 폐단을 막기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을 센터가 소재한 춘천시 분담 비율 조정 등을 이유로 보류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 대상포진 사백신 지원 근거를 담은 예방접종 지원 조례(대표발의 이지영)를 예산 과다 소요(복지보 건국 추계 첫 해 1512억원)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이설화

2023 10 13 ()

江原日報

03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지원 조례 진통끝 부결

“예산 과다 소요” 도의회 사문위 통과 못해

속보=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강원자치도민에게 ‘사백신’을 지원하는 조례(본보 지난 4일자 3면 보도)가 논란 끝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12일 제32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이지영(더민주·비례)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의원들은 예산이 과다 소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고, 비용 추계를 놓고 이지영 의원과 집행부가 대립했다. 비용 추계는 사업 첫째 1,512억원, 이후 매년 126억원으로 계산됐다.

이지영 의원은 “이미 접종을 한 경우가 있는데 65세 이상 전체 인구 36만명 기준, 시중 백신 최고가를 계산했다”며 “집행부가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경희 도 복지보건 국장은 “전체 인구가 아닌 질병관리

청의 65세 이상 예방접종률 70%로 추산했다”며 “대상포진 백신을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이고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시급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접종 백신을 ‘사백신’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심오섭(국힘·강릉) 의원은 “종류를 조례로 정하기보다 의료인이 환자 상태에 맞게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같은 집행부의 반발과 의원들의 지적이 일자 이 의원은 한발 물러섰다. 이 의원은 “도를 통해 자료가 확보된 후에 심도 있는 심사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재웅 사회문화 위원장은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 하려는 취지는 인정되나 대상포진은 전염성이 강한 위급한 질환이 아니고,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정리했다. 이날 사문위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보류했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0 13 ()

03



도의회 안전건설위 조례안 심의 12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열린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양숙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박기영 위원장이 가결시키고 있다. 서영

江原日報

2023 10 13 ()

03

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도 신청사 건립지 현지 시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2일 춘천시 고은리 도 신청사 건립지 등 현지 시찰에 나섰다. 현지 시찰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열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진행됐다.

이날 현지 확인된 도 신청사 토지는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249필지, 13만8,100㎡ 규모로, 249필지 공시지가는 165억4,6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16일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토지’, ‘태백소방서 청사’, ‘시·군 지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등 취득건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취득 및 처분에 대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길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올해 말 신청사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500억여원의 감정가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이고, 또 보상금액이 나오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지시찰을 통해 대응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0 13 ()

02

알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재정 분야 토론회

강원도민일보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작업과 맞물려 10월 18일, 강원연구원에서 재정분권 방향성 등을 논의하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재정 분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재정분야 특례에 대한 도민 공론화 및 전문가 의견이 수렴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행사: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재정 분야 토론회

■일시: 10월 18일 (수) 오후 2시

■장소: 강원연구원 1층 리버티홀

■주최·주관: 강원특별자치도·강원연구원·강원도민일보

■좌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주제발표: 전지성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재정분과

특례 검토 (안)’

■토론: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유태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 △기은선 강원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예산과장

2023 10 12 ()

MTN  머니투데이방송

홍성기 강원도의원,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홍성기 강원특별자치도의원

홍성기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홍천)은 12일 강원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제3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심의,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수목원에서 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상위 법령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수목원 내 취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는 수목원 내 지정된 장소 등 제한적 범위에서 취사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서는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등에서 '입장 및 관람, 이용 제한 행위'와 '금지 행위(행위 제한)'를 각각 분리,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일 제32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한다.

신효재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2023 10 12 ()

스포츠서울

홍성기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수목원 내 취사 금지’ 골자 조례 개정 추진

‘강원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10.12일 제323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1차 회의서 원안 가결



홍성기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이미지.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목원에서의 취사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0.12일(목) 제3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홍성기 의원(국민의힘.홍천)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수목원에서의 취사 행위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상위 법령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수목원 내 취사 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는 수목원 내 지정된 장소 등 제한적 범위에서 취사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상위 법령에 반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이와 함께,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등의 시설에서 ‘입장 및 관람, 이용 제한 행위’와 ‘금지 행위(행위 제한)’를 각각 분리, 규정해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도 주된 골자다.

홍성기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수목원 시설에서 금지 행위(행위 제한)에 대한 법령 불일치 해소와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입장 제한 및 금지 행위(행위 제한) 등의 분리,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10.20.(금) 제32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acdck@hanmail.net

강원도민일보



강원도민일보가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공동후원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산림수도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10일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열린 가운데 내외빈들이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하고 있다. 김정호

“강원형 산촌 자본주의 확립, 탄소세 도입·가공단지 조성 필수”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산림수도로!

9.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산림수도로! 국제심포지엄

강원도민일보가 주최·주관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산림수도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산림분야 전문가들은 강원형 목재산업 집중 육성을 비롯해 탄소세 도입, 목재 가공단지 조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와 연계, 지난 10일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선 일본 오카야마현 마니와시의 산촌자본주의 모델을 통한 강원형 산촌자본주의 비전이 다각도로 모색됐다. 토론문을 간추려 싣는다.

토론문

△조영희=“산림 분야 산업에 있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은 사업 주체자의 참여도 가능 부족하다. 일례로 웰니스향노화 사업의 경우 향노화 생산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과 원료를 공급하는 생산자 역할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기업과 생산자가 주도하지 못하고 정부나 지자체에 의존하는 사업에서는 성과가 나올 수 없다. 관(官)과 민(民)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목재산업의 중요한 키워드는 탄소중립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산림 순환경제와 바이오매스 등 모든 산림 활동들이 탄소중립과 연결돼 있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목재산업 육성이다. 일례로 목재 건축물을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에너지 생산부분의 탄소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개선이야. 많은 국민들이 나무 벌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산림 활동은 이러한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에서 시작한다. 강원도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420여원을 투입하는 목재클러스터 사업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산업 방향을 가르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한다.”

△김용복=“중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새로운 관광 산업을 마련해 도민들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이외에도 산지이용의 가치를 증진하고 지

진홍원·가공단지 조성 의견 제시

“탄소중립 방침 민·관 신뢰 우선 기업·생산자 주도적 역할 필요

진홍지구 활용 경제적 가치 증대 탄소세 제원 산촌·산림에 환원

최소 500ha 산림경영 집단화 등 국유림 지역 목재 가공업체 필요

암석성장·고령화 사회 선결 과제

일본 마니와시 모델 다각도 모색

속가능한 산림 녹화 조성사업도 필요하다. 이러한 중장기적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협의가 중요하다. 또한 시·군과 강원도가 함께 강원도 산림 활용이라는 큰 뜻 아래 지역별 특색에 맞춘 산림정책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산업 발전은 산촌이 중심이 되는 자치도에서 특별히 완화된 산림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새로운 산림관리 정책이다. 보전산지는 보전하되 개발이 용이 가능한 산지는 최소한으로 활용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전 세계적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강원도 산림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강원도 산림은 활용 방안

좌장



우중춘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토론(무순)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장



최정기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심국보
충북대학교
목재공학과 교수



김외정
춘천목재협동조합
이사

따라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우리 강원도 산림의 가치를 더욱 키우기 위한 산림 정책을 종합해 나가겠다.”

△최정기=“산림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강원도는 한국의 빗줄기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많은 관광객들이 강원도로 몰려와 탄소가 다량 배출되고 있는데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탄소세를 검토할 수 있다. 해당 재원을 통해 산촌과 산림에 환원하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조금 전 주제발표에서 강원도 국유림이 전체 산림 중 절반을 차지한다고 했다. 국유림은 너무 중요하다. 국유림에서 나온 목재목들은 지역 제재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 산림 경영이 중요하다. 산촌자본주의 모델을 확립한 일본 오카야마현 마니와시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8개 시·군의 산림조합이 목재산업과 바이오매스 등을 강원도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는 산촌을 재생하기 위해 기업을 산촌으로 이끌어야 한다. 에너지 관련 기업이 산촌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진흥원이 산재돼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산림진흥원을 만들어 산림 산업을 총괄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심국보=“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슬로시티전망대를 목재로, 강원도에서 자란 나무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탄소중립에 있어 목조 건축, 목조 이용이 중요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하는 탄소를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기간을 연장해 주기 때문이다. 건축과 가구의 수명기간 동안 탄소배출기간을 늘려준다. 목재에 의한 탄소저장효과다. 우리나라 건축재료는 철근, 콘크리트다. 땅속 광물자원을 캐내서 집을 짓는 현장까지 운반해 집을 짓는 데너지 소비 건축구조다. 이 구조를 재료가가 없고, 탄소를 저장하고, 다시 재이용할 수 있는 목재로 바꾸는 것만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국회에 공공건축 목재이용 촉진법이 발의됐었다. 법 통과까지 기다리기보다 도에서 산촌이나 증축할 수 있는 공공기관 청사를 일정 비율 목재건축으로 짓는 도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 강원도를 찾는 분들은 강원도 건축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주민들은 파출소, 우체국 등에 갈 때 따뜻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강원도가 산림수도로 가는 길이 될 거다.”

△김외정=“산림수도 강원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강원도 산림은 전체의 82%를 차지하는데, 30년 후에는 95%의 산촌이 소멸된다고 한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산림수도가 아닌 산림만 있는 강원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첫째, 산림 경영의 집단화가 필요하다. 산림은 최소 500ha 규모가 있어야 경영할 수 있다. 산림경영단지를 추진하고, 인공림 조성비용을 높여 산림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목재 생산 지역 부근에 가공단지를 마련해야 한다. 목재는 무겁고 부피가 크다. 목재를 경쟁력 있게 활용하려면 목재 무게와 부피를 줄여 유통해야 한

다. 일본 오카야마현 마니와시에는 40여개 제재소가 있다. 이는 목재 부피를 줄여 수입 경쟁력을 키우고, 산림 활용에 있어 지속성을 갖게 한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확충이 필요하다. 강원도 국유림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면 국가적으로도 탄소중립에 문제가 생긴다. 국유림은 반드시 지역 가공업체들이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중춘=“대학에서 산림경영을 30년간 가르쳤는데, 우리나라 현상에 산림경영을 접목하기가 쉽지 않았다.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이다. 강원도 산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림이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분기점에 와 있다. 전체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일본의 임업 및 산림 활용 현황을 타산지석 삼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산림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건 큰 의미를 갖는다. 코로나를 계기로 세계 흐름은 전과 후로 나뉘었다. 뉴노멀 시대로 사람들이 새로운 문명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에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뤘다. 산림 녹화 또한 세계가 가장 단기간 내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다. 짧은 기간 성장하다 보니 여러 사회 문제와 더불어 산림 분야에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에 산림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출생 고령화 시대 산림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등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정리/김익형

강원도민일보

2023 10 13 ()

18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만 남았다

요즘에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10월 3일 제1회 올림픽이 열렸던 그리스 아테네 파나티나이코 경기장에서 2024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성화가 채화되면서 성공개막을 향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가 지난 8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총 80일간 17개 시·도 23개 도시를 도는 성화투어가 진행됩니다. 이번 성화투어의 주제는 '꿈과 열정을 지닌 청소년들과 스포츠로 하나 되어 빛나는 미래를 향해 성화투어 여정을 떠난다'며, 표어는 '연대의 여정 (Journey of Solidarity)'입니다.

이제 지난 4년여간 준비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만큼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아시아권 최초로 열리는 제4회

아시아권 최초 개최 대회

국제적 관광도시로 거듭나

강원특자도 문화 경험 제공을

개최도시 4곳 뿐만 아니라

강원 전역서 대회 붐업 필요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평창, 횡성, 정선지역에서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열립니다. 전 세계 70여개국 260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서로의 기량을 겨루고 나아가 스포츠를 넘어 대한민국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를 경험하는 우정을 나누는 가치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아시아 최초'로 개최하는 만큼, 성공개최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동계스포츠의 산실이자 국제적인 문화관광의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회를 90여일 남겨둔 지금 대회에 대한 관

심과 붐업을 조성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11일 G-100기념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며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붐업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열기가 전국민적 관심까지 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와 붐조성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 대회의 개최까지는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분명 안전하고 쾌적한 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개최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회의 면밀한 준비와 더불어 대회 흥행이 필수입니다. 온 국민이 이번 대회에 관심을 갖고 함께 응원하고 세계에서 방문하는 선수들을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대회의 붐업을 위해 하나되어 뚝뚝 뭉칠 때입니다. '탄탄하게 준비된 대회! 대한민국이 응원하는 대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저력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대회!'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13 ()

14



홍성기(홍천·왼쪽)
도의원·엄윤순(인
제) 도의회 농림수산
위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1시 춘천시 호반
체육관에서 열리는 제
3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의날 행사
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13 ()

17



강정호(속초·왼쪽)·
김용복(고성) 도의원
은 13일 오후 1시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
는 특자도 여성농업인
의날 행사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13 ()

15

의원은 13일 오후 1시
춘천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강원특별자치
도 여성농업인의날 행
사에 참석한다.



윤길로(영월·왼쪽)도
의원·최종수(평창)도

江原日報

2023 10 12 ()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춘천)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 춘천고 운동장에서 열리는 제10회 춘고인의 날 가족 체육대회에 참석.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엄윤순(인제)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강정호(속초). 박호균(강릉). 윤길로(영월). 전찬성(원주). 최종수(평창). 홍성기(홍천) 도의원은 13일 오후 1시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

이승진(비례) 도의원은 14일 오전 9시 춘천기계공고 운동장에서 열리는 춘천시 지역아동센터 어울림한마당에 참석.

2023 10 13 ()

江原日報

01

선발인원 3년째 최저 초등교사 ‘임용 절벽’

강원지역 초등교사 선발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정부가 교원 정원 감축에 나서면서 선발 규모가 큰 폭으로 떨어진 탓이다.

12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개한 ‘2024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69명을 선발하는 초등교사(일반) 시험에 278명이 몰려 4.0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도입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기존에는 2011학년도에 기록한 3.9대1이 역대 최고 기록이었다. 강원지역 초등 선발 경쟁률은 매년 상승 추세다. 2019학년도까지만 해도 경쟁률이 1대1 수준이었지만 2021학년도 2.53대1, 2022학년도 2.84대1, 2023학년도 2.97대1 등으로 경증 뛰었다.

경쟁률이 치솟은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내세워 신규 임용 규모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실제 올 8월 도교육청이 발표한 ‘2024~2028학년도 중장기 학생 추계’를 보면 현재 6만9,300명인 도내 초등학생 수는 2025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해 2028년에는 5만5,800명 선으로 내려가는 등 ‘학령인구 절벽’이 현실화된다. 이 같은 여파로 강원 초등 교사 선발인원은 2022학년도부터 3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강원 초등교사 선발 경쟁률 현황

연도	선발인원	경쟁률
2018학년도	298	1.09:1
2019학년도	253	0.93:1
2020학년도	233	1.10:1
2021학년도	152	2.53:1
2022학년도	95	2.84:1
2023학년도	86	2.97:1
2024학년도	69	4.03:1

자료: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내 내년도 경쟁률 4.03대1
NEIS 도입 이후 가장 높아
학령인구 줄자 교원도 감축

선발 시험에 응시하려는 교대 졸업생은 매년 쏟아지고 있는데, 선발 인원은 갈수록 감소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겸임수업, 업무 과중, 기간제 교사 채용 등 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단의 충격이 불가피하다.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과제 가운데 ‘교사 정원 증원’을 최우선으로 꼽는 등 특례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강원특별법에 ‘교사 정원 증원’ 특례를 꼭 반영시켜 안정적인 교사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선영기자

2023 10 13 ()

04

江原日報

도내 농기계임대소 인력 전국서 가장 적다

1개소당 3.9명 근무 ... 농번기 직원 업무 과중·농민 불편 호소

강원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관리 인력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 과중과 농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강원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1개소당 인력은 3.9명으로 특별시·광역시 제외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적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지역 농업인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농기계를 임대해 농업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올 6월 기준

도내 68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 중인 농기계는 1만1,807대이며, 249명의 인력이 농기계 점검·소독·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농번기인 4~5월, 9~11월은 임대사업소가 토요일과 휴일에도 운영되는 가운데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직원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도내 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김모(43)씨는 “농번기에는 직원들이 격주로 주말 근무를 한다”며 “수요가 많아지면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기존 직원들 업무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농가들 역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인력난으로 인한 농기계 관리·소독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도내 군지역에서 과수 농사를 짓는 박모(54)씨는 “지역 농가 대부분이 예초기를 임대하고 있는데 사업소 직원들이 바빠다 보니 소독 없이 다음 예약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있다”며 “세균병이 퍼지진 않을까 늘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력 충원은 각 시·군이 예산을 편성해 이뤄진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들은 한정된 예산 탓에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번기가 끝난 후에는 임대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무턱대고 충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번기 비상 인력 투입 등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오미기자 omme@

2023 10 13 ()

01

江原日報

인기몰이 가리왕산 케이블카 ‘한시운영’ 꼬리표 떼까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운영 10개월 만에 13만명이 이용한 가운데 3년으로 못 박힌 ‘한시운영’ 기간 만료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곤돌라 유지 또는 철거의 키를 쥔 산림청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가 각각 산림 복원 방향에 대한 자체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내년 7월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가리왕산 케이블카 곤돌라의 운영 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2021년 국무조정실 주관 사회적 합의를 통해 3년간 한시운영 후 시설 유지 여부를 정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이후 시설 존치 여부는 산림청이 결정하게 된다. 산림청과 도는 내년부터 가리왕산 산림 복원에 착수할 예

운행 10개월 만에 13만명 이용
내년 말 운영 기간 만료 앞두고
도 시설 유지 정부와 협의 추진

정이다. 우선 가리왕산 일대 산사태 위험이 있는 만큼 물길을 복원하는 작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강원자치도 역시 산사태 방지를 통한 안전 확보는 향후 곤돌라 운영에도 필수라는 점에서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친환경적인 물길 복원

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 이후 케이블카의 유지·존치 여부는 사실상 내년 7월에 결정될 전망이다. 내년 4월 산림 복원을 위한 설계가 완료되며 산림청이 진행 중인 케이블카 활용 방안 용역이 내년 7월 마무리된다. 용역 결과는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운영을 결정할 바로미터가 된다. 이에 강원자치도는 시설 설계와 활용 방안 용역에 정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객 수는 올 1월3일 개장 이후 10월 11일까지 10개월간 13만1,300여명에 달해 주요 관광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의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산림 복원과 케이블카의 이용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 산림청의 용역 등에 지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주말 '원주 기업도시 상생마켓' 조명섭 뜬다

내일 개막식 첫 개최 축하공연
소상공인 아트마켓·이벤트 풍성
기업도시 활력 제고 발전 기원

원주 출신 전통가요 지킴이 가수 '조명섭'이 14일 원주기업도시를 찾는다. 14, 15일 이틀간 원주기업도시 샘마루공원에서 펼쳐지는 '2023 원주 기업도시 상생마켓' (Come Funny Market)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첫날인 14일 오후 2시 30분 행사장에서 약 30분간 흥겨운 무대를 선보인다.

가수 조명섭은 2019년 KBS2 '트로트가 좋아' 오디션에서 왕중왕에 뽑히며 스타덤에 올랐다. 원주 봉대초, 반

곡중, 미래고를 졸업했다. 지난 2021년 강원도민일보가 단독 후원한 '제1회 힐링콘서트 in 원주'에서 원주시 관광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이어 이듬해인 2022년 원주시 홍보대사에 이름을 올리며 원주를 위한 활동 폭을 한층 넓이고 있다.

원주기업도시 상생마켓은 지난 2019년 원주기업도시 준공 후 사실상 처음 펼쳐지는 원주 기업, 소상공인, 시민의 상생 한마당 잔치다. 이를 기념해 축제 현장에서는 원주가 낳은 스타 가수 조명섭의 흥겨운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예술팀 여섯줄 사랑 공연, 프레소양상불 공연, 마술 및 별론 쇼, 나팔박 공연, 우드양상불, 팀클라운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14, 15일

이틀내내 펼쳐진다.

특히 17개 원주 기업들의 다양한 홍보 및 판매 부스, 26팀의 소상공인 아트마켓이 시민과 함께 어우러진다.

기업 부스에는 네오플랜, 미라클 5.5, 단미푸드, 카페in, 치약산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 바다본, 알지오제지, 산삼향기 푸른숲, 서원당, 만강포감자떡, 돼지문화원, 원주 정지돌 전통, 농업법인 어랑, 원주복숭아빵, 정토담, 원주농협, 원주축협 등 다채로운 원주 기업이 참여, 기업과 자사 제품을 홍보, 판매한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폴리텍대학도 현장 부스에 참여해 각 기관의 소중한 정보를 시민과 교류한다. 소상공인 아트마켓에는 이노센트, 안방과 연필, 가락방, 모

든아트, 슬라임 카페홀릭, 꼬순내 공방, 반짝반짝, 예자매마켓, 투데이스 마일별름, 어쭈구리 왕문어, 센치 기업도시점, 제멜리에, 농업회사법인 서승, 지혜로운 댕냥이, 하얀갤러리, 젤리풍당, 농어촌네트워크, 구름솜 원주점, 기정떡이 맛있는 집 원주기정떡, 마루양말, 은빛공방, 작업실 247, 맘에든다, 송오브랜드, 체니에스, 이쁜아이 등이 참여,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꾸민다. 개막식은 첫날인 14일 오후 2시 축제 현장에서 열린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역 정치권, 기업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 기업과 시민의 상생과 기업도시 활력 제고 등을 통한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원주 발전을 기원한다.

정태욱

강원도민일보

'축제의 계절' 강릉 지역경제 활성화 단비

내일 본지 주최 경포마라톤대회
커피축제 300여개 부스 발걸음
대도호부관아 미디어아트 눈길

'2023 경포마라톤대회'와 '제15회 강릉커피축제' 등 강릉지역 내 굵직한 축제들이 잇따라 개최되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23 강릉커피축제'가 12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경포 호수광장에서 본격막을 올렸다.

실·내외 두 곳의 축제장에는 커피 어워드,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디저트 및 커피 공예, 푸드트럭 등 총 300여개에 달하는 부스들이 운영돼 커피 마니아들과 시민,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다.

'하늘연달 강릉커피'를 주제로 열린 올해 축제는 오는 15일까지 진행



2023 강릉커피축제가 12일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과 경포 호수광장에서 본격 막을 올렸다.

되면서 수 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강원도민일보사와 강릉시육상경기연맹이 주최·주관하는 '2023 경포마라톤대회'가 오는 14일 경포 해변 중앙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날 대회 참가를 위해 전국에서 3000여명 이상의 마라톤 동호인과 관계자들이 강릉을 찾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어 강릉문화원이 주관하는 '2023 강릉대도호부관아 미디어아트 사업-빛으로 만나는 강릉의 신화'가 오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오후 7~11시 강릉대도호부관아에서 펼쳐져 시민·관광객들의 야간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릉시가 주관하는 '한복문화주간' 행사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강릉대도호부관아에서 잇따라 열린다. 이어 짬뽕과 칼국수 등 다양한 면요리를 만날 수 있는 '강릉누들축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월화거리 일원에서 펼쳐진다.

지역 숙박업소 관계자들은 "이번 주말 커피축제와 마라톤대회, 미디어아트 행사까지 3개의 대형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숙박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각종 행사들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다 보니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연재 dusdn2566@kado.net

2023 10 13 ()

江原日報

04

‘금값’ 김장배추에 무름병 확산.. 농가 시름

가을철 고온·장마 지속 영향
수확량 평년比 30% 감소 전망
도농지원, 철저한 방제 당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경중 오르고 있지만 강원지역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가을철 이상기후로 병충해 피해가 발생, 생산량이 평년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월에서 9,900㎡ 규모로 배추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71·주천면)씨는 “지난달까지 이어진 무더위로 무름병이 발생, 이달 말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 3분의 1 이상의 배추가 망가져 팔 수 없게 됐다”며 “수확 전까지 남은 배추라도 상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장배추’라고 불리는 가을배추는 8월부터 모종을 심기 시작해 약 70일 후 수확하는데 생장기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되면 무름병, 뿌리혹병 등 각종 병해충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지역의 월평균 기온은 춘천 21.9도, 강릉·홍천 21.5도, 영월 21.3도로 평년(18.6~19.2도)보다 높았다. 더욱이 지난달 중순 가을장마까지 1

주일 넘게 쏟아지는 등 고온다습한 가을 날씨가 계속됐다.

통계청이 집계한 도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2020년 1,520ha, 2021년 1,445ha, 2022년 1,588ha 등이다. 올 가을 재배면적도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름병 피해를 입은 농가는 올해 수확량이 3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천 내면농협 관계자는 “가을배추 수확이 시작된 이달 초에는 하루 100톤가량을 출하했는데 지역 농가 대부분이 무름병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40% 가까이 감소하면서 날마다 출하량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이달 들어 낮 최고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병충해 발생 위험성

은 감소했지만, 혹시 모를 병충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가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도농지원 관계자는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은 배추에 예방 약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하고, 배수로 등 물이 고여있는 곳들을 정비해 배추가 다습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오미기자

2023 10 13 ()

江原日報

04



물러버린 김배추

올해 절임 배추 소비자 판매 가격이 20kg 기준 5만원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5,000원가량 오른 가운데 12일 강릉시 송정동 하평동에 재배 중인 배추가 무름병으로 노랗게 변해가고 있다.

강릉=권태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0 13 ()

/ 18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필요

-서울 쏠림 심화, 강원 한류 자산 적극 활용해야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 쏠림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조선시대 궁궐 등 역사 유적과 문화관광 시설이 있어 여행지의 다양한 매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천국제공항과의 교통 접근성과 풍부한 숙박 인프라도 서울 집중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국제 관광 도시를 모색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시·군은 이런 상황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입장입니다. 강원의 자연과 여행의 장점을 부각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합니다. 수도권과의 연계관광 등 여행 프로그램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도내 K-드라마 K-팝 등 한류 콘텐츠를 홍보하고, 관광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중심의 외국인 관광 경향은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외국인 관광객의 81.8%가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지난 7월 한달 동안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26만 398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조사 결과 서울을 방문했다고 답한 비율은 그 뒤를 이은 부산, 경기보다 5~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

우 8.4%를 기록하며 상위 3곳에 이어 전국 네번째로 높은 외국인 관광객 방문율을 보였으나, 외국인 관광을 주도하기에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강원의 경우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강릉과 속초 등 동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강릉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1만 1915명으로, 지난해 방문한 총 외국인 관광객 수인 10만 1196명을 뛰어 넘었습니다. 지난 7월 한달 동안 속초를 다녀간 관광객은 모두 242만 1572명으로 외지인이 241만 4878명, 외국인이 6694명으로 나타나 국제 관광 도시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원 관광의 강점은 한류와 자연환경입니다. 지역 곳곳에 포진해 있는 K-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는 관광객들의 여행 만족도를 높이기엔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BTS 앨범 재킷과 화보 촬영지는 지금도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들 콘텐츠를 관광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한류 관광 루트를 만들고, 외국인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지역으로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13 ()

/ 18

‘의원 자유발언’ 발언 이후가 더 중요

-후속조치 등 지속 관리하고, 지자체장은 피드백 능동적이어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유발언’ 내용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잇그제(10월11일)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부터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맨발걷기 코스 조성 등 다양한 의원 발언이 나왔습니다. 특구에 대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접경지, 폐광지 3개 모델을 강원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9월엔 춘천·원주·강릉·태백시 등 의회에서 열악한 농촌 여건과 기업환경 등 여러 의제가 등장했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의제 중 하나는 공공의료와 지역경제 사안입니다. 심오섭 도의원은 도민의 고른 기회를 위해 도립재활병원이 춘천 이외에 영동권에 추가 건립돼야 하며, 주문진에 소재한 도립대학에 보건계열 신설과 청년간호사 급속장려금 지원 확대로 인재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운기 춘천시 의원은 산업단지 600여곳 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공단 강원본부 춘천지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최미영 태백시 의원은 산업화 동력인 석탄산업 역사 기록과 노동자에 우에 정부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여건이 퇴락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김홍수 강릉시 의원은 농촌 생활인프라가

기본적인 것조차 해결이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 박제철 춘천시 의원은 도심 위주 개발로 박탈감이 큰 농촌에 균등한 삶의 질 향상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의원 자유발언은 그 지역이 당면한 실상과 현안이 부각되는 장입니다. 도·시·군의회 사정에 따라 발언시간이 10분, 7분, 5분으로 차이가 있지만 발언을 준비하는 의원 노력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전에 공들여 준비한 발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수관리입니다. 발언이 후구체적인 행정 조치나 후속 진행이 어떤지 지속해 살펴야 합니다. 의회에서 발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구체적인 조치를 동반해야 하는 사안이 대다수여서 성과로 매듭지어져야 합니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의원 자유발언이 단순한 정책 제안과 같은 주민대표 역할에 쏠려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입법기관 역할을 담은 발언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비효율성 및 불합리한 정책을 비판하려면 더 힘이 들지만 강화해야 할 지점입니다. 동시에 도와시군단체장은 의원 자유발언에 대해 피드백하는 정책적 노력에 인색할 경우 독단으로 비칠 수 있기에 소통에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10 13 ()

/ 25

도내 악성 민원 한 해 평균 471건, 대책 시급하다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2,356건으로 한 해 평균 471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도를 넘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보호 장비도 갖추지 않은 기관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도내 지자체 ‘휴대용 보호장비’ 설치율은 55.7%로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낮다. 투명 가림막 설치율도 79.7%였다. 악성 민원은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꺾고, 나아가 다른 민원인들에게 들어갈 행정력을 낭비시킨다. 불안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선진행정 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근무 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그동안 민원인의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은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감질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무리한 민원을 넣어 공무원을 못살게 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민원서류를 신청해 행정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최근에는 공무원이나 교사

를 상대로 민원을 핑계 삼아 집요하게 괴롭히는 일이 허다하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상당하다. 민원폭탄을 맞으면 해당 기관은 업무 처리에 문제가 생기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실효적인 사전 예방책을 세워 달라는 민원 일선의 당부를 새겨 법을 고쳐서라도 악성 민원만큼은 단호하게 대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제 공직사회도 악성 민원에 대해 얼렁뚱땅 넘어가기보다는 적극 대처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 성실하게 자기 본분을 다하는 공무원이 무리한 억지와 요구, 인격 모독적인 폭언, 심지어 폭행을 하는 행위에 시달리는 것을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민원 담당자가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안내만으로는 악성 민원을 거르기 힘들다. 보호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악성 민원을 규정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발생 시 관련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심리적 지원을 통해 이를 극복하게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물론 공무원이 민원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따라서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江原日報

2023 10 13 ()

/ 25

보훈급여 인상이 독이 되는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은 제대로 대접 받아야 한다. 그러자면 이들을 위한 국가의 정책은 주도면밀해야 한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5% 이상 인상된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어처구니없다.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서부·동부보훈지청에 접수된 보훈급여금 포기 신청자 수는 2020년 2건, 2021년 3건, 2022년 2건으로 총 7건에 그쳤

지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총 30명이 수급을 포기했다. 전년 대비 15배가 폭증한 셈이다.

우리나라 보훈제도는 1984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오늘날 제도의 틀을 갖추게 됐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합당한 경제적 처우와 국가유공자로서의 영예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월남전 참전용사 및 5·18민주 유공자 등으로의 대상 확대와 생활조정수당 제도 도입 등으로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IMF 경제위기와 2000년도 이후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확대에 이들에 대한 새로운 지원 방안의 모색을 요구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국가유공자의 경우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고령화로 인한 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을 돕기 위

한 정책 수단은 정교해야 한다. 현실을 똑바로 파악하지 못한 국가유공자 예우가 오히려 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쳐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이 더는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모든 보훈급여는 당연히 소득공제 대상이 돼야 한다.

국가유공자 80대 이모씨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를 위해 월 27만4,000원씩 받아온 무의탁수당을 올해부터 포기했다는 본보의 보도(10월12일자 5면)는 우리나라 보훈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보훈

정책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대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위해 포기 속출

2020년 2건에서 2023년 9월 현재 30명

보훈급여, 소득공제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가의 의무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보훈대상자의 값진 희생과 공헌으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보상 수준도 유공자로서의 품위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만, 수당액의 인상에는 상당한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가유공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와 최대의 예우를 그들과 유족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안보의 방벽은 더 튼튼해진다. 한반도는 여전히 위기 국면이다. 국가유공자들을 실질적으로 예우하는 일이 우선이다.